

김창희시집

기차가 서서
달리지 않는 이유

연변인민출판사

김창희시집

기차가 서서
달리지 않는 리유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현순

책임교정: 김홍화

기술설계: 김천사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顺其自然·活着: 朝鲜文 / 金昌熙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7

ISBN 978-7-5449-0397-4

I. 顺… II. 金… III. 诗歌-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2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115296号

顺其自然·活着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5.5 字数: 16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397-4 (民文)

版次: 2008年8月第1版

2008年8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20.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 머리글 ·

이 세상을 뒤집어보려는 시인의 야심

한 춘

시란 무엇인가? 수천년 인류문명사에 시에 대한 정립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있다. 그러나 시는 “신의 말이다”라고 한 푸르게네브의 말이든 “시는 령혼의 음악이다”라고 말한 볼테르의 말은 시는 령감에 의하여 씌여진다는것을 암시하고있는것으로 많은 시인들이 접수하는 시의 정의다. 필자 역시 시라는것은 하나의 짙막한 시편속에서 인생의 비전과 령혼의 부름과 존재와 사물을 동시에 제시하는 예술이라고 력설하여왔다. 이제 독자들이 펼쳐보게 될 김창희의 시집 《기차가 서서 달리지 않는 리유》를 이런 시점에서 접근할 때 그의 령묘한 시심이 무엇인가를 읽어볼수 있을것이다.

내가 김창희시인을 중시하게 된것은 어느해던가

《장백산》잡지에 실린 시와 시평이라는 코너에 김룡운씨가 소개한 김창희시인을 지면으로 알게 된 그때부터였다. 그의 시는 남들과는 독특한 문맥으로 필자의 안구를 끌었다. 우리 시단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반어와 패러독스 같은것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보려는 그 문필이 이색적이였다.

그리고 김창희시인이 몇해전 내가 몸담고있는 흑룡강신문사의 편집기자로 초빙되면서 매일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였고 종종 문학, 시에 관해 대담을 나눌 기회를 가지게 되였다. 필자도 애주가이지만 김창희 역시 술을 무척 좋아하는지라 자주 술상에서 별리는 시담론은 술상이 언제 파할지 모를 정도로 진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교류가 있었기에 그의 시에 대하여 일말의 견해를 세울수 있었다. 김창희시인이 시발표를 서둘지 않는것을 두고 여러번 조언도 주었지만 그는 아마 발표에 큰 미련이 있는것이 아니라 창작 그 자체에 신경을 더 쓰는것 같았다.

이번에 그의 시집을 일독하면서 과거 그가 문학지에 발표한 시작품에 비해 그의 문체특성에 또 한가지 새로운 독특한 점이 있다는것을 발견했다. 아이로니와 패러독스를 떠나 좀 비속적인 언어를 쓴다는 이 점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시어는 아름답고 문화적이며 승화된 언어로 시적형상을 구축하는것이 전통적인 시론에서 배워주는 정론이다. 그런데 시에 좀은 비속적인 언어를 쓰는 시작자가 우리 시단에는 아직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 점은 혹시 구설수에 들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언어가 그 시작품에

서 확실히 시적은유를 전달하는 가장 유일한 언어로 되었을 때는 별도의 문제다.

시적대상인 사물 자체를 대상사물에 종속시키지 않고 아이로니와 패러독스를 통해 그 사물을 상징화하는 시적작업은 일정한 시적재기와 언어적재기가 없이는 도달하기 힘든 경지다. 시란 예술은 무엇을 쓰는것도 중요하거니와 어떻게 쓰는가 역시 아주 중요한것이다. 재래시단을 보거나 지금도 재래시단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시작품을 볼 때 시적대상인 사물에 자체의 정서를 이전하지 않고 그 사물 자체를 그려내는 전통적인 작법에 익숙하다. 현대시학은 객관상관물에 자기 내면속에 잠자고있던 정서에 불을 지펴 상상을 연소시키는 시적긴장력을 요청한다. 이때 자체의 정서를 어떻게 객관상관물로 이전시키는가 하는것은 시인 나름대로의 시적궤적에 있다.

김창희시인의 시를 보면 시인의 실존상태를 엿볼수 있다. 시인은 자신의 존재처지에서 출발하여 이 세상을 보고 객관을 보고 내면을 성찰하고 또 우주의 섭리를 관조한다. 김창희시인은 어딘가 불안한 생활환경에서, 그것도 사회저변생활의 심처에서 방황하는 마음을 잠재우지 못하는 시인이라고 하겠다. 그가 이 세상을 보는 시점이나 그가 자기 시적경지를 풀어가는 방식이나 그가 시적언어를 활용하는 취미를 보아서 그에게는 어딘가 파격적인 일면이 있는 것 같다. 김창희시인의 파격적인 시구조는 우선 기존의 정연한 객관구조질서를 해체하여 자기의 심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데서 잘 보여지

고있다. 해학적인것 같지만 그것은 단순한 해학을 넘어서 어딘가 풍자적요소가 다분한 그리고 원유질서를 흔들어보려는 야심이 보여진다. 그렇기때문에 그의 시는 또한 시문체에서도 원유 정연한 서정시의 질서를 해체하여 지성적인 인지의 정감을 전달하여 준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김창희 시 절반은 독파할 수 있다. 그의 시를 해독하기 좀 어려운것은 그의 문체적인 특징에서 아이로니와 패러독스를 재기있게 잘 활용한데 있다. 그러나 이런 문체가 우리 시단에서는 많지 않은 문체적인 특징을 가지고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가치는 자연히 성립된다.

이 시집은 김창희시인이 80년대 말기 20대 젊은 시절 시지망생때 창작한것으로부터 금년까지 장장 20년간 창작한 작품에서 선정하였다. 초기작품을 볼 때 친정(亲情)과 인정 그리고 향수 등 내용의 시들이 있는데 이런 시에서는 그의 초기작품의 미숙성과 아직은 자기 독특한 문체를 구축하지 못한 그런 허점들이 보인다. 그러나 그의 시창작년륜이 두터워지면서 점차 그의 문체적인 개성이 엿보이며 이것이 마침내 그의 시미학의 개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제 그의 첫 시집 출판을 축하하면서 안이한 시적창작자세를 고쳐 좀더 근면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창작에 투신하여 좀더 좋은 시를 창작하기를 기대해본다.

2008년 6월 5일

차례

머리글 · 한춘 · 이 세상을 뒤집어보려는
시인의 야심/ 001

제1부 짝퉁서비스 맛보세요

- 랭장고는 계절을 몰라도 좋소/ 003
 짝퉁서비스 맛보세요/ 004
 토끼와 거북기 원전/ 006
 고놈의 좀벌레가/ 008
 시의 변명/ 009
어느 여름 거리의 반란/ 011
간사한 날에 만난 근사한 일상/ 013
 깨여있는 눈/ 015
 그래서 싫다/ 016
 이런 사람/ 017

태초의 시간/ 018
점철/ 020
뿔는다 그러면/ 021
소는 소이고 싶어한다/ 023
거꾸로 흐르는 물도 물이라 하는가/ 025
한낮의 넉두리/ 027
력사/ 029
참새의 동화/ 031
락서시/ 032
탈피/ 034
홀로인 잡풀은 잡풀이 아니다/ 035
도시/ 036
락서 168/ 038
오(悟)/ 039
장미의 교훈/ 040

까마귀/	041
사람이 동물과 다른것/	042
사람은 가리기를 즐깁니다/	044
성병치료포스터/	045
아름다운 락서/	046

제2부 오솔길은 발가락사이서 흐르고

오솔길은 발가락사이서 흐르고/	051
물.../	053
가을 변명 그리고 여린자여!/	055
해바라기/	057
수박/	058

칼치/ 059
나와 풀/ 060
다시금 이어보는 연줄/ 061
철길/ 063
지친 그리움/ 065
오월의 미소/ 067
거미가 줄을 치오/ 069
가을을 밟으면/ 070
락엽 · 1/ 072
락엽 · 2/ 073
바람/ 074
화토불/ 076
어둠과 초롱/ 077

어둠의 색을 보았습니까/ 078

인간과 어둠/ 080

동물과 인간의 차이/ 081

오늘의 아픔/ 082

반잔/ 084

생존철학/ 085

지구는 세집인가/ 086

시골추억/ 087

제3부 당신의 계절을 찾습니다

- 당신의 계절을 찾습니다/ 091
두만강기슭 호곡령에서 온 뉴스/ 093
기차가 서서 달리지 않는 리유/ 095
이발찌끼인생/ 096
내가 미워날 때면/ 098
상금도 시를 쓰는 시우가 부럽다/ 100
울타리는 함께 한다/ 102
삼륜차부 하루 각인/ 103
어머니/ 105
나의 생명/ 107
나팔꽃/ 109
바다/ 111
울음배우기/ 113

나는 누구/	115
이런척도 해봐 그러나.../	118
샘터/	120
느티나무아래서/	121
순간의 사연/	122
할매의 추억/	124
나는 위험한 뱀이다/	125
닐리리 반주인생/	127
상사수는 상사수로 행복합니다/	129
연길사람/	131
연변명태는 찢겨져 누구 반찬이 되나/	133
바위섬은 만남을 위해 태어났던가/	135
일상/	137
고독 · 1/	139
고독 · 2/	140
잠든 태양/	141

천지/ 142
폭포/ 143
온천/ 144
주전자/ 145

평론 · 김룡운 · 아이로니로 비춰보는

삶의 뒤편길/ 146

꼬리글 · 김창희 · 인정빛을 먹으며 게트림하며/ 158

제1부

짜통서비스 맛보세요

